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광양 관광 알리기 대표 슬로건 확정

광양 구룡산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광양제철소 야경. <광양시 제공>

대국민 공모 통해 선정...시, 이달말까지 통합디자인 개발 등 홍보 나서

광양시가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대표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광양시는 지난 21일 실·국장들로 구성된 광양시 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대표 슬로건을 이같이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양이라는 지명에 함의된 빛과 별을 토대로 낮에는 백운산과 섬진강 등 자연자원으로, 밤에는 광

해비치로 등 새로운 도심권 관광자원을 의미한다. 특히 체류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낮과 밤 언제나 빛나는 광양 여행을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구룡산 전망대 외에도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해달별천문대, 해비치로 야간경관조명 등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로 주목받고 있는 광양의 풍부한 야간관광자원도 부각시켰다.

광양시는 확정된 슬로건을 토대로 4월 말까지 통합디자인(BI)을 개발하고, 홍보물 및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로 관광도시 이미지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슬로건 선정에 대해 광양시는 지난 1월 대국민 관광 슬로건 공모를 통해 615건을 접수받고, 선정심의회 및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6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우수작 6건 모두 대표 슬로건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모여져 내부 공무원 초안에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최종 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광양시는 우수작으로 선정된 6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각 1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 관광 슬로건에는 빛, 별, 산, 바다, 야경 등 광양만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미래 광양 관광 지향을 담았다"며 "감성적인 BI(통합 디자인)를 개발해 광양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확고하게 각인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4개월 늘려 6월까지 연장

순천시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순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기간을 4개월 더해 6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애초 3월 16일부터 30억 원을 한정으로 특별할인 판매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해 6월 30일까지 특별할인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6월까지 이미 발행된 30억 원을 포함해 4월 20일 전후로 20억 원, 5월에 40억 원, 6월에 30억 원을 추가 발행해 총 120억 원 상당액을 공급할 계획이다.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시내 농협은행, 순천농협, 원예농협, 축협, 낙농협 등 48개 지점에서 판매하며,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순천사랑상품권은 6500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는 모든 소상공인이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상품권 이용자에게 친절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관리하고 신규 가맹점도 추가 모집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들은 순천시청 지역경제과와 48개 순천사랑상품권 판매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 농산물, 백화점 직거래 장터서 인기

백세미·토란대·장미 등 광주신세계서 높은 판매고

코로나19로 시름에 잠긴 농어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백화점 직거래장터에서 곡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큰 인기를 끌었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5~19일 광주신세계에서 열린 전남도 주관 '코로나19 극복, 농어가 돕기 상생 직거래장터'에서 총 매출의 30% 이상을 곡성지역 농산물이 차지했다.

곡성군은 이번 행사에 백세미, 토란대, 사과, 꽃등 로컬푸드 농산물을 판매했다. 특히 공동선별된

명품 사과, 향형색색 장미와 알스트로메리아 꽃은 매일 완판돼 판매대를 새로 채웠다. 또 구수한 향이 가득한 명품 백세미와 백세미 누룽지 역시 집밥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광주신세계와 곡성 농산물의 입점에 대해 협의의 중"이라며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최근 광주신세계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에서 곡성 백세미·토란대·사과·꽃 등 농산물이 인기를 끌었다.

여수산단 중기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5월부터 운행

고용부 지원사업 최종 선정

여수국가산단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무료 통근버스가 다음달부터 운행된다.

22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연간 5억씩 3년간 15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지를 통과하는 대중교통의 이

용 불편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지원하는 정부 공모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여수상의가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여수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 오천산업단지 식품가공업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 공모에 '기업사랑 무료 통근버스 사업'을 신청, 선정됐다.

기업사랑 무료 통근버스는 다음달 시범 운행과 개통식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까지 운영된다.

통근버스는 45인승 9대가 6개 노선을 운행한다. 여수시 3곳을 기점으로 여수산단은 3개 노선 6대, 오천산단은 3개 노선 3대가 주중 운영된다.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은 무료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수산단은 출·퇴근 시간대 병목 현상이 극심하고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사용이 많아 주차난이 심각하다.

또 자체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 여건 등으로 통근버스를 지원하지 못해 근로자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오천산단의 경우 버스 이용자가 많지 않아 시내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업종 특성상 중년층 근로자가 많다보니 출·퇴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여수상의의 관계자는 "무료통근버스는 연간 1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모든 시민에 20만원씩 지급

광양시는 22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원씩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절차는 시민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상품권 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상품권 카드 수령 기간은 5월 8일까지이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가족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족을 대리해 일괄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동거인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2일 오후 1시부터 24일까지 3일간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오후 8시까지 신청접수 및 상품권 카드를 배부한다.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및 신청일 현재까지 신규 출생아는 오는 2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300여억 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급받은 광양사랑상품권카드는 지역 소상공인 피해자원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